

‘한국형 골드만’ 향한 여정... 대형IB 덩치 2배, 10조 눈앞

(골드만삭스)

(미래에셋대우 8.2조)

자본시장법 시행 10년

(上) 불룸 커진 증권업

작년 3분기 누적자기자본 5.3조
자본시장법 이후 연평균 8.7% ↑
‘자기매매’ 부문 성장세 두드러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법 제정의 기대효과가 국내 금융투자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나타났을까.

자본시장법은 지난 2007년 7월 국회에서 의결되고, 1년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2월 4일부터 발효됐다.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은행 대비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 부진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 즉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미흡 ▲자본시장 관련 법 제도에 문제점 존재 등



을 꼽았다.

자본시장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금융투자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다시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통해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자본시장법은 선진 투자은행(IB)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인 ‘한국형 골드만삭스’의 출현을 기대했다.

금융투자회사 업무영역 확대, 투자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시너지 창출, 다양

한 금융상품 설계와 제공,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였다.

◆ 불룸 커진 증권업

1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과 자기매매 비중을 높였다. 자기자본과 자기매매 증가는 증권사 성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은행(IB), 자기매매 등에서 경쟁력을 키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래에셋대우(8조2000억원), NH투자증권(4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4000억원), 삼성증권(4조5000억원), KB증권(4조4000억원) 등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자기자본 평균은 약 5조3000억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평균(약 2조3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 증가는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조치 덕분이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순자본비율 규제 등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이뤄진 제도적 조치가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확대 유인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연평균 증가율도 상승했다. 자본시장법 도입 전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으나, 법 시행 후인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8.7%였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1.0%포인트가 늘어난 것.

아울러 위탁매매 수익이 감소하는 환경에서 자본시장법이 국내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비중을 높이고 투자은행(IB) 비중을 늘리는 등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게 했다.

◆ 증권사 IB부문 수익 4배 증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 비중은 크게 줄었다. 2008년까지는 증권사의 위탁매매 부문 비중이 전

체 순영업수익의 60% 이상이었지만 이는 지난해 40%대까지 줄었다. 조성훈 연구원은 “경쟁의 심화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도입 후 국내 증권사들의 순영업수익 부문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문은 자기매매였다. 2008년까지 증권사의 수익 중 자기매매 비중은 최대 24%에 불과했으나 2018년 3분기까지는 최대 34%까지 늘어나는 등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투자은행 수익 규모도 지난 2008년 6000억원에서 2017년 2조249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 연구원은 “위탁매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도록 유도하고, 특히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를 담당하는 투자은행 부문을 성장시키는 등 자본시장법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랄라블라 파르나스몰점 매장에서 직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랄라블라

랄라블라, 외국인 관광객 공략 강화

‘택스리펀드’ 매장 125곳으로 확대

H&B(헬스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돕는 내국세 즉시환급(택스리펀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랄라블라는 지난해 2월, 최초로 택스리펀드 서비스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상위 17개 매장에서 운영됐으나, 현재는 125개 매장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외국인 고객이 국내 상품을 구입할 경우, 공항 등에 별도로 마련된 창구에서 사후 환급을 받아야만 했다. 별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출국수속 등으로 시간이 촉박해 내국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랄라블라는 매장 내에 택스리펀드 서비스를 도입해 이 같은 불편함을 완화했

다. 랄라블라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은 매장 내에 설치된 스캐너에 여권을 스캔하면 부가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다.

매장 평균 이용 건수와 환급 금액도 늘었다. 지난 1년간 택스리펀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된 지난해 2월 대비 2019년 1월의 건수는 매장 평균 약 23% 늘었다. 환급 금액은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환급 건수가 많은 매장은 명동중앙점, 홍대중앙점, 명동2가점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의 해운대점과 서면중앙점이 각각 8위와 15위에 올랐다.

이경한 랄라블라 서비스상품 MD는 “외국인 고객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서비스를 대부분의 매장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취준생, 26곳 지원... 서류합격 ‘단 3곳’

지난해 구직자들은 평균 26곳에 입사지원서를 냈지만, 서류합격 통보를 받은 횟수는 3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은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고, 실제 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4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취업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류전형 합격률로 보면 11.5%로 10명 중 1명 만 취업의 첫 단계에 진입한 셈이

다. 입사지원 횟수는 ‘10회 미만’(43.8%)이 가장 많았으나, ‘10회~19회’(18.4%), ‘20회~29회’(9.8%) 등 10회 이상 지원자도 상당수에 달했고, ‘100회 이상’ 지원했다는 응답자도 3.8%였다.

면접전형까지 합격 횟수는 평균 1.7회였다. 최종합격을 통보받은 경험은 겨우 평균 1회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구직 활동 기간은 4개월이었다.

/한용수 기자

美·獨선 SNS 분석 신용평가... 규제막힌 韓

해외 핀테크 기업 활용 활발
한국은 제한적 수준에 그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나 문자, 통신기록으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평가한다. 웹 사이트에 가입할 때 정보를 읽는 시간 등 행동패턴을 분석해 신용평점을 매긴다. 미국이나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반면 국내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P2P(개인 간) 대출기관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은 제한된 상황이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핀테크 기업이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신용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신용평가 방식은 채무상환 이력이나 현재 부채수준 등 주로 금융거

래 이력을 활용했다.

반면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데이터 등의 비전통적인 데이터에 머신러닝, 블록체인의 기술을 적용했다. 적용대상은 주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기록이 거의 없어 기존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은행권의 대출이 불가능한 계층이다.

필리핀의 핀테크 기업인 렌도EFL(LendoEFL)은 자체 개발한 렌도스코어로 채무 상환능력과 의지를 평가한다. 문자, 통신기록, SN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미국과 인도, 멕시코 등 20개 국가에 진출해 은행·카드·보험·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기술을 공급한다.

싱가포르 크레도랩(CredoLab)은 모바일 데이터로부터 5만개 이상의 부문을 평가해 2분 이내에 신용 점수를 산출한다.

미국 탈라(Tala)는 모바일앱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예금, 네트워크 등 1만 개 이상의 데이터 부문을 평가한다. 지난해까지 250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했다.

독일 크레디테크(Kreditech)는 웹사이트에서의 행동, 가입 전에 정보를 읽는 시간 등 개인행동 분석을 신용평가에 활용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신용평가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현재는 신용평가통신요금 납부실적 제출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부 인터넷은행이 주주사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적용 중이다. 그러나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윤희남 연구원은 “해외 여타 핀테크업체 및 금융기관의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 활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신용평가 기법을 한 단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smahn1@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도입, 대상회사 11개 그룹 분리

자산규모 따라 세분화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일부 기업들의 감사시간이 3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외에도 적용 그룹을 세분화하는 등 초안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최종안이 나왔다.

하지만 회계 비용 급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회계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안책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상승률의 상한을 30%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자산규모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분리했다. 초안의 6개 그룹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룹을 세분화했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 7)를 별도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그룹1(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과 그룹2(개별 2조원 이

상)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여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 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감사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는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 종합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접수받고 문제가 된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